

사회운동참여를 통한 재일한인 2세의 민족정체성 변화 고찰*

- 지역사회활동가 P와 S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박신규**

kobu84@hanmail.net

이토히로코***

windjammer347@gmail.com

<目次>

- | | |
|---------------------------------------|--|
| 1. 서론 | 3.1 재일한인 2세 선정과 연구방법 |
| 2. 기존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 3.2 재일한인 2세 P와 S의 주요 생애사 |
| 2.1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연구경향 | 3.3 사회운동에 참여한 P와 S의 민족정체성
특징과 변화 분석 |
| 2.2 재일한인 사회운동의 시기별 특징 | |
| 3. 사회운동 참여를 통한 재일한인 2세의
민족정체성 변화분석 | 4. 결론 |

主語語: 재일한인(Korean-Japanese),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 사회운동(Social Movement), 시민연대(Civil Solidarity), 카타리베(Kataribe), 유동적 민족정체성(Fluid Ethnic Identity)

1. 서론

재일한인의 대다수는 일본의 식민지 시기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주하거나 강제징용의 형태로 들어와 해방 이후 일본에 정착한 조선인과 그 후손들이다. 한편 일본과 국교를 수립한 1965년 이후 한일관계의 변화가 오면서 일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의 활발한 이주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이주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재일한인을 올드커머, 1965년 이후 이주한 한인들은 뉴커머로 나누어 부른다.

일본사회에서 재일한인(1)은 같은 한민족으로서의 친밀감과 함께 동일 민족 내에 존재하는

* 본 연구는 2019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1987)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교신저자

다양한 층위인 세대, 계층, 이념, 국적 등의 축에 따라 분화되고 다원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²⁾ 특히 올드커머의 경우 일본으로 이주하여 정주한지 100년에 가깝도록 3,4세대에서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면서 본국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올드커머 재일한인들에게는 민족정체성의 문제로 귀결되며 이들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재일한인은 해방 이후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 민족이 하나의 국가와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재일한인에게 정체성 문제는 다른 어떤 소수 민족집단보다 복잡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정진성, 2018). 한편 2000년대 이후 재일한인사회는 재일한인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감소, 지역사회와의 공생문제와 경제적 자립의 달성, 차세대 정체성의 위기, 다양한 구성원의 출현(임영언, 2016:416)등으로 재일한인의 민족 정체성은 변화한 것으로 본다. 특히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다양화(福岡安則·金明秀, 1997:33)를 분석한 논의와 민족정체성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상징적인 정체성으로 변화된다는 논의(오노 치아키, 2005:46-58), 일본의 동화정책과 한국 정부의 기민정책, 재일한인의 의식변화로 민족정체성이 약화되었다는 논의(김왕식, 2005:33-47), 그리고 다양화와 약화라는 양 측면에서의 변화(지충남, 2018:36-38)를 고찰하여 약화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정주 지향성 경향으로 분석하는 논의 등이 현재까지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과 관련된 주요 연구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일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민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고 서로 대립적인 입장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잠재된 민족정체성을 지닌 것으로 분류되는 재일한인 2세의 민족정체성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기존 연구에서 2세대 이후 민족에 대한 인식상의 편차는 존재하지만 2세의 경우 식민자의 국가에서 피식민지인으로 살았던 1세 부모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민족적 차별 등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았기에 재일한인 2세의 민족정체성의 특징 및 변화를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이와 함께 재일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계기는 일본 사회에서 자신의

1) 재일한인에 대한 명칭은 매우 다양하다. 일본 내에서 공식명칭은 ‘재일한국조선인’이고 그밖에도 ‘재일조선인’, ‘재일코리안’, ‘재일동포’, ‘자이니치(在日)’ 등의 명칭이 각기 상이한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사용되어 있다. 본 글에서는 정치적 지향과 무관하면서 종족적 귀속을 지칭하면서 디아스포라적인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용어인 재일한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박신규외, 2016:114)

2) 2019년 6월 현재 일본 법무성의 재류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재일한인은 한국국적자 451,543명, 조선국적자 28,975명으로 총 489,518명으로 나타난다. 특별영주권자 신분인 올드커머는 314,146명으로 집계된다. 자료출처: 日本法務省「在留外国人統計」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2500122019>. [검색일: 2020.04.22]

타자성을 대면하는 순간이며 2세 이후는 열등감 및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갈등의 시기를 겪고 민족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정체성의 변화(이승훈, 2006:90)가 초래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또한 재일한인 2세들의 민족정체성을 위한 노력은 조직적인 사회운동의 차원으로 발전되며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을 이슈화하여 한인들의 사회적 권리를 넓히고자 운동(김왕배, 2003: 55-75)을 전개한 것으로도 나타난다. 그러므로 재일한인 2세로서 재일한인의 사회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삶을 추적해 보는 것은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특징과 변화의 측면을 고찰하는데 유용한 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사회운동 이론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정체성 변화를 고찰하는 연구는 주요한 주제이다. 개인의 사회운동 참여에 대한 분석은 참여 요인과 이 참여를 통해 개인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으로 이 과정은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는 재일한인 2세로 사회운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P와 S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고 이들의 민족정체성 특징과 사회운동에 참여로 변화된 민족정체성을 고찰하여 기존 재일한인 2세의 특징으로 간주되어온 민족정체성과의 차이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이들의 사회운동 참여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방법으로는 구술생애사 기법을 차용하였다. 본 구술생애사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자가 자신 삶의 경험을 구술하면서 그 맥락에서 내포된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사회적 위치성과 관련하여 주체로서 개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조직해 내는 행위성을 전면에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윤택림, 1993: 290). 또한 인간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운동에 참여한 재일한인 2세 두 사람의 경험이 재일한인 2세의 민족정체성을 일반화하는 데에 본 연구방법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 맥락의 변화 측면에서 사회운동에 참여한 재일한인 2세가 지닌 민족정체성에 대한 고찰을 다양화 할 수 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로 삼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2.1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연구경향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었다. 일본사회의 환경, 재일한인사회의 인구구성의 변화, 남북한과의 관계 등과 연결되면서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은 변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후쿠오카·김명수는 재일한인 생활방식의 지향성과 민족의식 강약 정도에 근거하여 민족정체성을 7개 형태로 구분하여 민족정체성의 다양화를 설명하였다(福岡安則·金明秀, 1997). 이와 유사한 황혜경의 연구에서 한국에 대한 애국심과 민족정체성은 젊은 세대의 재일한인일수록 거부감, 무관심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민족정체성이 다양화된 것으로 재일한인 사회의 세대 변화와 일본 사회와의 관계 변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한다(황혜경, 2017). 이와 비교하여 민족정체성이 약화되었다는 논의가 있는데 오노 치아키는 재일한인 청소년의 모국 인식에 있어 개인별 사고체계 속에서의 모국이고 이 원인이 민족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오노 치아키, 2005)으로 간주한다. 임영언은 재일한인 1세는 강한 민족정체성을 지니면서 독자적인 문화유지와 사회적으로 계급이 낮은 사회계층으로 살면서 집거지 거주 형태를 보이고 재일한인 2세와 3세는 잠재된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문화적 동화와 민족성의 표출이 곤란한 상태로 특징짓는다. 3세 이상은 상징적인 민족정체성을 지니며 문화적 동화 및 부분적 회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대를 지나면서 강한 연대의 민족성을 가진 재일한인의 정체성이 민족성이 약해진 상징적인 정체성으로 변화한 것으로도 본다(임영언, 2016). 지충남은 모국어 활용, 한민족 역사와 문화, 한반도 관심, 재일한인 사회 문제를 구성하여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을 조사한 결과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은 다양화 또는 약화된 것으로 보였다. 약화 요인은 고령화, 젊은세대의 감소, 정주지향성을 지적하고 있다(지충남, 2018)

한편 일반적으로 재외한인의 민족정체성은 본인들이 속한 민족국가의 공간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현재 거주하는 공간의 환경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으로 본다. 데이비드 허타트는 이러한 정체성을 혼종적 정체성으로 명명하기도 한다(데이비드 허타트, 2011). 특히 재일한인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일본과 한반도의 조국이라는 양자의 타자성 안에서 갈등과 타협, 조정의 과정을 거치며 민족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 양태로 재일한인은 식민지 시대라는 억압과 주권 박탈, 해방 후 정국의 혼란과 분열, 분단의 고착화 등으로 일본 사회에서 민족적 차별과 편견, 불공평을 견디면서 세대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대별로 특징을 보면 재일한인 1세대와 2세대는 일본에 대한 반발심과 함께 민족성에 큰 애착을 느끼고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자신의 언어와 정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위기 속에서 저항하는 기제로 민족정체성을 키워왔다고 기존 연구에서는 정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3세대와 4세대는 민족에 대한 기억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민족이란 소속감과 귀속감, 현실성이 없는 공허한 개념으로 소극적 민족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요약된다.

이러한 세대간의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차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민족정체성에 대한 정의

는 다양한 측면이 존재한다. 일반적 정의로 민족정체성은 복합적 개념으로 민족구성원 간들이 공유하는 소속감, 객관적이고 주관적 특징 그리고 집합적 특징 및 민족집단의 충성까지 포함한다. 이와 함께 민족정체성은 한 개인의 특성이면서 민족공동체의 소속감을 지각하는 것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으로 정의된다(정호영, 2001). 즉 개인은 민족적인 자기동일화, 민족집단에 대한 본인의 태도, 사회참여 및 문화적인 관습 등을 익히며 이것은 민족정체성의 핵심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김동엽, 2019)고 본다.

한편 민족정체성은 차이, 개성, 움직임의 논리로 보는 측면이 존재한다. 차이는 민족의 차이와 관계를 해명하는 작업이며 개성은 민족의 각자 구별되는 의식형태, 가치관, 언어체계, 생활습관 등으로 민족성 특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움직임의 논리로 보는 민족정체성은 변화하고 움직이는 유동적 표현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족정체성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주류민족의 정체성은 적극적 민족 정체성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에는 국가정체성과도 일치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경계인의 위치에 존재하는 민족들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변형되며 안정된 정체성을 획득하기 어렵고 이것은 소극적 민족정체성으로 명명할 수 있다. 소극적 민족정체성은 인지와 행위적인 측면에서 자기 민족의 고유성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구성원의 일원임을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움직이는 개념인 민족정체성은 생산적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토양이 될 수도 있다(이문철,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재일한인 2세의 민족정체성은 잠재된 민족정체성을 지니며 민족성에 큰 애착을 가진다는 특성과 함께 민족정체성에 대한 정의 및 특성과 관련된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대상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2 재일한인 사회운동의 시기별 특징

재일한인이 일본사회에서 전개한 사회운동은 운동의 성격, 조직, 시기, 대내외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후 일본에서 전개된 외국인 정책과 재일한인의 사회운동을 분석한 다케나카(竹中理香)의 논문은 재일한인의 사회운동의 시기와 내용을 일본과 남북한 관계를 고려하면서 지역으로써 일본 차원, 권리요구와 참가지향의 요인에 따라 분석하고 시기별로 운동의 특징을 분석한다. 재일한인의 사회운동 1시기는 전후에서 1965년까지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조국지향적이고 자위적(自衛的)운동의 성격을 지니며 운동의 양태는 귀국 및 민족교육 운동 참가로 특징짓는다. 2시기는 1965년 후반에서 1970년대의 시기로 정주화와 권리획득 운동으로 특징화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권리지향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한일협정

체결 이후에는 법적인 지위운동으로 나타난다. 특히 2세대가 운동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시기로 본다. 3시기는 1980년대 주민으로서의 권리획득 운동시기로 일본 내 지역운동으로 전개된다. 주민운동과 지문날인거부운동, 지자체 시책에 관여하는 운동이 주요 내용이었다. 4시기는 1990년대와 2000년대로 구분되는데 1990년대에는 재일한인의 고령화와 전후보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으로, 운동의 양태는 전후보상 및 무연금문제 해결, 지방참정권 쟁취, 문화교류 사업 등이 실시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복지관련 NPO가 전개하는 사업이 운동의 차원으로 전환된다. 개호보험제도와 재일한인 고령자의 고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다케나카(竹中理香)는 해방 전후부터 2000년 이후까지 일본사회에서 전개된 재일한인의 사회운동을 시기별로 운동의 성격과 이슈별로 정리하였다(竹中理香, 2015).

한편 재일한인의 사회운동에 있어서 시기별 특성을 단면적으로 고찰한 국내 연구를 보면 이진원은 해방 이후부터 1965년 한일협정 이전까지 전개된 재일한인의 사회운동을 외국인으로서 소수자운동으로(이진원, 2018) 분석하였으며 윤상철은 조국지향운동이 가장 강하게 전개된 시기로 본다. 해방 이후 초기 사회운동은 일본사회에서 단체를 결성하여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과 동시에 일본에서 맞이한 해방과 생활의 장(場)인 곳에서 행해지는 조선인 멸시와 탄압으로부터 본인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았다(윤상철, 2004). 이후 1970년대 재일한인의 사회운동은 전환기를 맞는 시기로 재일한인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조국으로의 귀국보다는 일본 정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소수민족으로 겪는 법 제도의 차별에 대한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1970년 박종석이 히타치제작소의 입사시험에 합격하지만 한국적이라 불합격 처리된 사건, 1976년 김경득 사법시험 합격, 그러나 한국적에 따른 사업연수원 입소 거부 등의 사건은 민족차별투쟁이라는 사회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기폭제가 된다. 사회운동 과정에서 민족차별과 투쟁하는 연락협의회(민투련)가 결성되는 등 재일한인의 사회단체 활동이 확대되었고(임영언·허성태, 2013)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방자치제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참정권 운동이 전개되었다.

1980년대의 사회운동은 권리획득운동이 더욱 본격화되었으며 시민 혹은 주민으로서의 운동으로 자리매김화된 것으로 본다. 특히 지문날인거부운동은 재일한인의 세대교체와 정주지향이라는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한 운동으로 일본 거주가 조국과 말이나 문화·풍습의 차이를 생기게 하고 이것은 재일한인의 자기규정을 외국인이라는 자각은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시민/주민으로 전환되어감을 의미하게 된다. 일본사회에서 정주가 현실이 된 재일한인이 주류 일본인에게 ‘함께 인정하고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자는 요구로써 일본사회의 참가를 촉구하는 ‘일본인에 대한 러브콜’로 명명되기도 하였다(鄭榮鎮, 2018).

한편 1990년대 이후 재일한인 사회운동은 지방공무원의 수험자격에 포함된 국적조항철폐에 관한 내용으로 1996년에 가와사키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참정권 요구운동도 전개되었다. 70년부터 시작한 참정권 운동은 1995년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영주자 등의 지방참정권부여는 헌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판시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여기에 1980년대 말 이후 가와사키시와 민투련 등의 사회운동 조직은 지방참정권 등 외국인 주민의 정치참가에 관심을 가져 1996년에 ‘외국인 시민 대표자 회의’를 결성한다(정진성, 1996). 이와 같은 변화는 세계화의 흐름과 맞물려 외국인 유입과 증가가 일본사회에 발생하면서 기존 외국인으로 존재한 재일한인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다문화공생이라는 담론과 함께 일본인과 재일한인이 시민단체의 활동에서 만나게 되는 것과 연관된다. 따라서 1990년대 재일한인의 사회운동은 기존 차별과 민족이라는 이슈만을 제기한 운동에서 문화운동, 다문화공생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운동 등 새로운 운동들이 다양화·이종혼동성의 형태로 변화된 것으로 본다(李 洪章, 2009).

2000년대에는 일본사회가 사회적 약자 문제와 함께 이들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등이 제안되면서 재일한인사회에도 집거지를 중심으로 고령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실시되었다. 이것은 복지서비스 활동이 사회운동 차원으로 전환된 것(竹中理香, 2015)으로 재일한인의 사회운동이 지역적이며 생활지원 운동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일본사회에서 전개된 ‘헤이트 스피치(橋本 みゆき, 2017:105)³⁾를 허락하지 않는 시민연대와 같은 활동’은 가와사키시를 중심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재일한인과 일본인이 차별에 반대하는 연대체를 구성한 것이다. 이 운동은 상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다문화공생을 통한 지역만들기 운동으로 지역에 뿌리를 둔 재일한인운동의 변화와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해방 이후 2000년대까지 전개된 재일한인의 사회운동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일본사회에서 재일한인의 사회적 위치성을 고려하고 이것에 기반한 이슈를 조직화하면서 운동이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요소는 이들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민족과 차별의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화하고 일본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재일한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세대, 국적, 지역 등과 연결되어 다양화되면서 사회운동의 양태도 새롭게 구성되고 조국지향에서 내부지향으로 변화된다. 또한 그 내용도 지역시민, 문화운동, 복지서비스, 시민연대, 개별 활동 등으로

3) 헤이트 스피치는 증오표현, 혐오발언으로 폭력과 차별을 선동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한다. 대표적 사례는 2009년 교토 조선학교 습격사건으로 학생을 표적으로 했고 재판과정을 통해 헤이트 스피치 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橋本 みゆき, 2017:107)

분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전개된 재일한인의 사회운동에 개별적으로 참여한 재일한인 2세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이들의 민족정체성의 특징과 변화는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본 연구에서는 살펴보고자 한다.

3. 사회운동 참여를 통한 재일한인 2세의 민족정체성 변화분석

3.1 재일한인 2세 선정과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운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재일한인 2세를 대상으로 이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정체성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일한인 2세이면서 사회운동에 참가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P와 S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P는 재일한인 사회에서 저명한 민족운동가로 한국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으며 그에 대한 생애사와 관련된 연구논문도 발간되어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 재일한인의 사회운동 평가와 그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2020년 2월 4일에 가와사카시 후레이이관에서 P를 직접 대면하고 생애사와 현재 근황에 대한 인터뷰를 2시간 정도 실시하였다. 그의 생애사는 총서가 발간되어 있기에 책의 원본(조현미, 2014)을 토대로 사회운동 참여 계기 및 이를 통한 개인의 변화 과정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S는 후쿠오카 출신의 지역운동가로 일제시대 징용으로 끌려온 노동자들의 삶을 역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마와타라 사택 보존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1998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초중고를 다니면서 전쟁경험 등 본인이 체험한 역사적 사실을 구전하는 활동인 카타리베⁴⁾를 실행하였고 지금도 계속 참여하고 있다. 그에 대한 생애와 사회활동에 대한 인터뷰는 2020년 2월 7일에 실시하였다.

4) 카타리베는 ‘나라 시대 때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이야기 전해져 온 사실(史實), 전설 등을 보존하여, 이야기 전하는 것을 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킨 용어인데 1970년대 이후 신문을 통해 히로시마, 나가사키, 오키나와, 도쿄대공습, 공해피해 등의 ‘전쟁 경험자 및 공해 피해자’인 카타리베를 소개하는 기사, 담화, 활동 내용 등이 자주 등장하게 된다.(佐藤 2014:248, 川松, 2018:8). 1973년의 제1판 『일본국어대사전』에서는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전설, 사실, 옛날이야기를 구전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자’로 설명하고 2001년에 발간된 제2판에서는 ‘옛날이야기나 전쟁 체험 등을 차세대에 이야기해 전승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추가되어 설명하고 있다.

3.2 재일한인 2세 P와 S의 주요 생애사

재일한인 2세인 P와 S는 1944년생으로 P는 도쿄도 세다가야구 시모키타자와 출신이고 S는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야하타 출신이다.

P의 부모님은 아버지 형제의 도일에 따른 가족연쇄 이주로 아버지의 이주가 1940년에 선행되었고 어머니와는 사진결혼의 방식으로 가족을 형성하게 된다. P는 6남매의 장남으로 성장한다. P가 성장하던 시기에 재일한인들의 삶은 일본에서 막노동을 하며 빈곤한 삶을 영위하였는데 부모님의 직업은 막노동, 고철줍기, 고물상의 잡역부 등으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 따라서 P가 기억하는 유년시절은 가난과 조센징으로 당하는 차별에 대한 회고가 다수를 차지한다. 대학에 진학하지만 자신의 적성과 무관한 대학 진학 등에 회의를 가지면서 방황하는 시간도 가지게 된다. 이후 일본 이름으로 일본인 회사에 취업하지만 모국어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동경 한국 YMCA의 한국어 교실에 들어가게 된다. YMCA의 활동을 시작으로 1974년에 민족차별과 투쟁하는 연락협의회 창설 참가,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 참가 및 총간사 역임, 1980년 사회복지법인 청구사 이사 취임, 1988년의 가와사카시 후레아이관 부관장 등을 역임한다. 특히 가와사카시 외국인시민대표자 회의, 가와사카시 다문화공생시책 검토위원회 위원장 등의 역할은 재일한인 및 소수자 인권운동은 주요 업적으로 뽑을 수 있다(조현미·이현철, 2013: 608).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청구사 이사장으로 지역 생활운동의 확대를 통해 재일한인과 일본인, 지역 소수자들이 공생할 수 있는 운동의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S는 1940년에 아버지가 야하타 제철소에 강제 징용으로 오게 되고 2년 후 어머니가 4남매와 함께 도일한 유형이다. S는 7남매의 다섯 번째로 이주 2년 후 출생하게 된다. 야하타 제철소의 사택에서 부모님의 징용노동의 버거움, 가난과 배고픔, 소학교에서 차별 등을 겪으면서 성장한다. 해방 후 부모님은 귀국하고 싶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귀국할 수 없게 되고 아버지의 막노동을 통해 가난한 재일한인의 삶을 살게 된다.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민족학교에 진학하면서 조선인이라는 민족정체성을 습득하게 된다. S는 조선대학교에 진학하지만 어려워진 가정 경제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야채상, 페인트공, 고철회사, 고물상 등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1985년에 S는 지문날인반대운동에 참여하면서 시민운동에 참가하였다. 특히 일본인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기록 담당을 하는 자격으로 참가하게 된다. S는 1989년에 강제연행의 발자취를 짚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여행에서 마와타리 사택 방문과 철거에 대한 소식을 듣고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한 역사적 보존을 위해 1993년에 보존모임의 대표가 되고 운동에도 참가하게 된다. 보존운동은 오오무타시, 미쓰이 광업 등과 15회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1997년에는 기념비 건립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8년에는 어머니와 함께 일본 차세대들에게 재일한인의 역사, 차별의 문제,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카타리베 활동을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1,000회 이상의 강연을 실시하였다. 카타리베 활동은 어머니 사후 누님과 함께 진행 중이고 평화운동가로 개인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3.3 사회운동에 참여한 P와 S의 민족정체성 특징과 변화 분석

1) 민족정체성 맹아(萌芽) 근거 : 민족 차별 경험과 ‘조선인’ 위치 자각

1944년생인 P와 S는 재일한인 1세인 부모 이주로 일본에서 태어났다. P는 아버지의 형제가 일제시기에 일차 이주를 하고 가족들이 자연적으로 연쇄이주를 하였고 S는 아버지가 강제모집의 형태로 일본 체질소로 가고 이후 가족들이 이주하는 형태였다. 이주 시기는 1940년으로 당시 일본으로 이주 인원이 약 38만 6천명으로 증가하던 시기(조현미·이현철, 2013:617)로 일본 내에 부족한 노동력을 조선인으로 채우고 있었다. 두 가족은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남게 되며 이곳에서 조선인으로서 빈곤과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재일한인 1세대가 기술없이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고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일본사회에서 조선정이라는 위치를 학교라는 공간과 지역사회를 접하면서 자각하게 된다.

이케노우에는 거의 일본인 밖에 없는 곳이었으니까 조선인인 나는 어릴 때부터 일본인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 3학년 때부터 5학년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다. 허구한 날 아이들과 싸웠지만 학교의 급식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식사였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웠다. 소학교 때의 나의 이름은 일본식 이름인 ‘하이 시게노리’였다. 일본인들의 성(姓) 가운데에는 ‘하이’라는 성이 없으니 아이들은 금방 내가 일본인이 아닌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소학교 시절 ‘조선정’이라는 이유로 아이들로부터 이름을 가지고 놀림을 당했던 것이 싫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서부터 ‘하이(裊)’가 아닌 ‘타케모토(武本)’라는 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P의 유년시절)

고메의 토로쿠, ‘호시하라의 토로쿠’, 나를 낳추는 말. 정말 정말 싫었다. 라쿠이치(樂市)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반이 조선인이었다. 부모님은 아하타제철소에서 일했고 집은 가난하고 250엔 받으면 반찬을 사는 여유가 없었다. 어머니 가 시장에 가서 올 때 조선 사람은 머리를 묶고 걷는 모양이 이상하게 보이니까 일본인 학생들이 비웃고 하니깐 난 부끄러웠다. 아버지는 이놈 새끼 우리들을 억지로 연행시켜놓고, 일만 시켜! 너희들 조선이라 바보 취급하지마라고 침을 날리면서 말하는 걸 내가 어릴 때 생활 속에서 자주 들었는데 조선인 그만두고 싶었다. (S의 유년시절)

유년기 시절 이들의 공통점은 가난과 민족적 차별의 경험이었다. 해방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재일한인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었으며 ‘조센징’으로 호명되면서 피식민지인으로 상징화되었다. 특히 두 사람은 성장하면서 이름을 통해 자기인식을 하게 된다. 호명은 타자를 통해 자아를 인식하게 하는 독특한 발화 행위로서 재일한인으로 정주하는 자들에게 호명은 주체의 사회적 관계와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자각하게 만들 수 있다. 이들은 재일한인의 존재가 적은 곳이나 많은 곳과 상관없이 본인의 이름과 ‘조센징’이라는 명명에서 내부 반감과 일본인과의 싸움으로 발현되거나 일본식 이름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족의 위치와 존재성을 자각하며 감정은 부정적 형태이지만 이들의 민족정체성을 성장시키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2) 민족정체성의 부정과 정립 : 사회운동 참여 차이 발생

재일한인의 정체성은 일본 사회에서 자신의 타자성을 만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세 이후는 열등감 및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갈등의 시기를 겪고 이 과정에서 민족단체 등의 참여라는 계기가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기존 연구는 분석하고 있다(이승훈, 2006:90) 본 연구의 사례인 P의 경우에도 특히 청년기 초반에 본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학교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던졌고 방랑과 갈등의 시기를 겪고 이후 동인지 활동, YMCA의 한국어 교실 참가 등의 결과를 낳았다. 이 활동들은 사회운동에 참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등학교 끝나는 쯤에 ‘조선인 선언’을 했고 일본명을 버리고 대학교는 민족명(본명)으로 다녔다. 대학 중퇴 후 나는 일본인의 그룹, 동인지(同人誌) 같은 곳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제 조선인은 싫다. 도망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조현미, 2014). 1년의 방랑 이후 일본의 회사에 취직하면서 다시 일본 이름을 쓰게 되었다. 회사 측에서 ‘당신이 한국인인 것은 알고 채용하지만 거래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 이름으로 써달라고 했다. 회사동료들이 신문을 보면서 ‘조선인이 또 나쁜 일을 했다’면서, ‘타케모토, 너도 그런 놈이지?’라는 식의 말을 하고는 했다. 조선인을 전제로 모욕하는 발언에 항의도 못한 채 자리를 피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도 한국인이니까 한국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YMCA를 나가기 시작했다. (P의 청년시절)

S의 경우 부모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조선학교의 진학이 본인의 민족정체성을 강화시키는데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부모님은 강제징용으로 인한 노동의 힘듦으로 일본에 대한 원망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원으로 자식들의 교육 지원

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지역에서는 총련이 중심이 되면서 1957년부터 북한으로 민족학교 지원이 이루어져 대량의 교육원조와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이것은 재일한인들에게 귀국운동과 함께 민족교육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키게 만들었다. S도 당시 본인의 형님들이 조선대학을 진학했고 본인도 고등학교부터 민족학교에서 수학을 하게 된다. 일본사회가 단일 민족국가라는 국가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획일적 국민 교육을 강조해 온 곳이기 때문에 민족학교의 존재는 소수민족의 민족적, 사상적 저항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한 것으로 해석된다(정병호, 2003:140-142). 이곳에서 진행된 우리말과 글에 대한 교육, 예술공연 그리고 저항문화는 S에게 민족정체성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본인의 사회활동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기폭제로 작용한 것으로 언급된다.

규슈조선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우리말, 우리 역사 우리 문화 배우면서 나는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정체성. 자기 자부심을 거기서 찾았다. 우리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고 우리말, 우리문화를 배우면서 조선인으로 태어났고, 자존심을 갖고 살아야한다고 여겨졌다. 우리 부모들의 쓰라린 역사를 후세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도 바뀌어 갔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진로를 정할 시기에 집에 돈이 없었는데 조선인민공화국에서 조선대학교로 가면 장학금을 내준다고 해서 대학을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당시 형님들 셋이 민족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우대를 받을 수 있었고 대학을 갔다. 고등학교 때부터 조선대학까지 거기서 배운 것이 나의 삶에 밑거름이 된다. 지금 활동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S의 청년시절)

청년기에 재일한인 2세로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의 부정와 방황, 갈등, 정립 등을 거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식민지국에서 피식민자로 살았던 부모의 삶에 영향을 받았고 민족적 차별 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았기에 경계인의 위치에서 소극적 민족정체성이 내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나타난다. 특히 청년기 P의 경우 방황과 갈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은 인지와 행위적인 측면에서 자기 민족의 고유성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구성원의 일원임을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족정체성이 외부요소로 인해 변화되면서 생산적인 자아정체성 변화할 될 수 있다는 논의처럼 P와 S는 단체활동 참여, 민족학교 진학은 이들의 삶에서 소극적 민족정체성이 생산적인 자아정체성으로 변화되는데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3) 잠재된 민족정체성 발현과 강화 : 민족운동가와 지역활동가로 활동

재일한인사회에서 1970년 중반부터 80년대까지는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로 평가받고 있다. 재일한인 2세가 전면적으로 모든 활동에 주축이 된 것으로 조국으로의 귀국보다

는 일본 정주를 선택하면서 소수민족으로 겪는 법제도의 차별에 대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특히 P의 경우 YMCA의 활동을 통해 사회운동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인과 이목사라는 주요 인물을 만나 재일한인의 사회운동에 중심 인물로 성장하게 된다. 70년대 사회운동의 기폭제가 된 박종석의 히타치 법정소송 운동 참여, 민족차별과 투쟁하는 연락협의회(민투련) 결성 및 지문날인제도과 같은 민족차별에 대한 투쟁 안에서 차별을 고발, 규탄하는데 P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은 본인에게 잠재된 민족정체성이 사회단체 활동과 조직을 만나 강화되면서 민족운동가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가와사키 이00 목사가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자신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는 있었지만, 정작 왜 우리가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연구소에 들어와서 자각하면서 열심히 학습을 경험하였다. 연구소의 일을 하면서 1970년에 히타치운동을 제기하였고 1974년에 드디어 법정에서 승소판결이 나왔다. 히타치 투쟁 지원 그룹에서 새로운 그룹을 만들고 하여서 조직한 것이 ‘민족차별과 싸우는 연락협의회’, 약칭 ‘민투련(民闘連)’이었고, 실제로는 내가 사무국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외국인등록제도의 지문날인제도에서 전국의 변호단을 연결 시켜, 소송방법을 의논하거나 문제점을 제공하는 일도 하였다. 이러면서 시민운동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다양한 민족차별에 대한 투쟁을 해왔다. (P의 장년시절)

S는 1985년에 지문날인반대 운동에 기록자로 참가하면서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전에는 생활고로 직장생활을 해 오고 있었고 일본인과의 교류를 통해 시민단체에 간헐적으로 참가하고 있었다. 일본인과 공유하는 시민단체 모임의 현장체험 중에 마와타리 조선인 수용소를 접하면서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생기면서 마와타리 사택 보존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운동 참가는 85년 지문날인반대운동부터이다. 고쿠라의 최창화(崔昌華)라는 목사가 지문날인 반대를 호소했고 이를 응원하는 일본 사람들이 있었다. 시민단체의 일본인과 연결되어 있어서 시작했다. 1989년 여름, 오오무타시 미쓰이석탄광업소와 미이케광업소를 방문했는데 2종의 마와타리 조선인수용소가 남아있었다. 마와타리사택 일대가 향후 해체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필드워크 일행과 함께 사택 해체연기와 그 보존을 긴급과제로 하여 내가 대표가 되어서 ‘보존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보존의 모임’이 결성된 것은 1993년 3월 10일이었고 약 1,400명분의 서명과 기부금을 토대로 오오무타시, 미쓰이광업, 미스터 맥스사에 대해 15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보존 운동의 참가는 왜 이렇게 조선 사람은 가난한가, 일을 하지만 생활은 편해지지 않고 조선사람은 여기서 비참하게 힘쓰는 노동만 하고 땀을 흘리는데도 생활은 좋아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민족차별도 받았고 가난하게 살아 그것에 대한 민족적 분노가 가슴속에 마그마처럼 불타고 있었다. 이러면서 나의 운동은 시작되었다. (S의 장년시절)

80년대의 지문날인반대 운동은 재일한인의 세대교체와 정주지향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한 운동으로 재일한인의 자기규정을 '외국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시민과 주민으로 전환된 운동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S의 경우도 일본인과 같이 시민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재일한인들의 정주지향이 강화되면서 민족차별에만 집중하는 운동의 편향성을 벗어나 일본사회에서의 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운동에 대한 고민이 재일한인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P의 인터뷰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재일한인로서 다양한 고민은 축적되었다. 동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동포가 확고한 민족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지 않는 이상, 우리 동포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어떤 일들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본 사회에서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동포들이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었는가? 민단과 총련도 있지만, 지나치게 정치화 되어서 점차 동포집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어밖에 말할 수 없고, 우리의 문화를 모르는 2세, 3세, 4세들이 늘어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디에서 자신들의 나라의 문화, 언어, 사람들과 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서 그런 공간이 필요했다. 지역 안에서 아이들의 민족성과 씨름하여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민족운동이다. 비행 문제, 미취학 문제, 취업 문제 등 다양한 문제와 씨름해야 되었고 그래서 1982년 가와사키시에 재일한인을 위한 건물 건설의 요구를 하게 되었다. (P의 장년시절)

재일한인 2세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이 본격화되었던 시기에 P는 민족운동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본인에게 잠재되었던 민족정체성이 교육과 새로운 조직활동가들을 만나면서 발현되고 주도적인 민족운동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운동의 양태도 재일한인의 정주경향이 강화되고 일본사회와 재일한인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새로운 민족운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의 설립으로 변화되어 갔다. S는 80년대 중반에 일본인과 함께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했고 지역의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체험을 통해 역사를 보존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지역활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부모세대가 직접적 강제징용의 피해자라는 인식과 민족적 차별을 경험한 본인의 체험 등 기반으로 잠재되었던 민족정체성이 역사현장에 대한 보존에 대한 열망으로 전환되었고 이것은 그를 사회운동에 뛰어들게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유동하는 민족정체성과 변화: 시민연대 운동가·카타리베 활동가로 전환

현재 노년기에 접어든 P와 S는 여전히 활발한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P는 재일한인이 일본사회에서 전개할 새로운 시민운동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다. 일본이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소수자의 구성원이 변화되고 있는 시기에 일본인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는 지역활동으로, 재일한인의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P는 강조한다. ‘민족’이라는 요소보다는 ‘생활인’으로 재일한인이 일본의 다양한 시민들과의 공존과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민족정체성이 사회 변화와 함께 변용되고 움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다. 앞으로도 일본에서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을 조금이라도 좋은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것을 위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일본사회나 일본인과 격리되어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일본사람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해야 하는 것들을 함께 해가야 한다. 지역과 밀착하고, 아이들, 빈곤, 장애자, 소수자를 살펴보는 그런 실천 그룹만 지역에서 사회운동으로 살아남았다. 시민생활과 밀착해서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지속해 가는지, 이 결과가 조례 만들기였고, 네트워크의 형성이었다. 이런 활동들이 이제는 중요하다. (P의 현재 시기)

S의 경우는 시민단체 활동과 함께 1998년에 어머니와 함께 카타리베라는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카타리베는 일본사회에서 체험한 경험 등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실천 활동으로 특히 전쟁경험을 계승하려는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일본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S는 어머니의 식민지 경험과 일본에서 피식민자로 본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삶의 경험을 일본의 차세대에 알려주고 전쟁의 피해 및 평화의 중요성을 자각시키는 것이 재일한인으로서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후 어머니를 설득하여 카타리베 활동을 전개하였다. 현재 S의 카타리베 활동은 재일한인 사회운동에서 일종의 문화운동으로 민족정체성을 조직이 아닌 개인 수준에서 개인과 개인, 인간적 유대를 기초로 한 새로운 재일운동이면서 평화운동 실현의 방식으로 여겨졌다.

강제연행을 생각하는 모임이 있는데 난 회원이고 거기 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직원연수에 전쟁체험 등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학생들한테 좀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모시고 갔다. 어머니는 처음은 싫어했지만 어머니가 아~리랑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전쟁하면 안된다. 전쟁하면 다 죽는다. 일본 사람도 조선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니까 사이좋게 하라. 친구가 되라’ 하면 학생들이 어머니 노래와 말을 집중하는 걸 보고 보람을 느끼셨다. 이후 학교 선생님도

어머니를 인정하고 모자 이야기꾼 활동을 하면서 역사 증언자가 되었다. 98년부터 어머니하고 하다가 1000회를 넘게 되었다. 마지막 목숨은 이제 평화운동에 바치고 싶다. (S의 현재 시기)

재일한인 2세로 이 두 사람이 현재 펼치고 있는 사회운동은 재일한인의 운동 역사에서 분석한 것처럼 재일한인사회가 세계화의 흐름, 뚜렷한 세대교체, 고령화 등의 대내외적 요소와 맞물리면서 사회운동의 내용도 더욱 다양화되고 차별과 민족이라는 요소만으로 엮을 수 없는 이슈들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일한인의 사회운동은 지역적이며 생활지원 운동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민족’ 정체성도 변화하고 움직이는 유동적 표현으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두 사람은 사회운동의 참여 과정에서 민족정체성의 성격과 내용이 더욱 유동성을 보이면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재일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민족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서로 대립적인 입장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잠재된 민족정체성을 지닌 것으로 분류되는 재일한인 2세의 민족정체성 특징이 사회운동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일한인 2세로 사회운동에 활발히 전개해온 P와 S씨를 선택하였다. 이들의 삶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방법으로는 구술생애사 기법을 활용하였고 두 재일한인 2세가 생애과정에서 형성된 민족정체성 특징과 사회운동참여를 통해 변화된 민족정체성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생애과정에서 유년기에 조선인으로 민족 차별을 경험하면서 ‘조선인’ 위치를 자각하게 되며 이것은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초기에는 성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선인이라는 민족성을 내부에서 만들게 되는 맹아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청년기를 거치면서 P는 부정적 민족정체성으로 인해 방황과 갈등의 시기를 겪다가 한국인의 근본은 알아야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YMCA의 한국어 교실에 참가하고 이를 계기로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반면 부모의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조선학교 진학하여 민족정체성을 정립한 S는 장년시기에 사회운동에 참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결국 청년기에 이들의 민족정체성은 본인의 자아 부정과 자아정립이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지만 이 과정은 이후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장년기에 두 사람은 사회운동을 통해 잠재된 민족정체성을 충분히 발현하면서 민족운동가와 지역활동가로 활발히 활동하

게 된다. 재일한인 사회는 70년 대말 80년대 중반 이후 재일한인 2세가 전면적으로 모든 활동에 주축이 되고 이들은 조국으로의 귀국보다는 일본 정주를 선택하면서 소수민족으로 겪는 법 제도의 차별에 대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 현재 노년기에 접어든 두 사람은 각각 지역 시민연대 운동과 개인적인 카타리베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들의 현재 운동 전개방식은 재일한인 사회와 일본사회의 변화와 함께 운동의 내용이 변화됨을 보여주면서 이 과정에서 ‘민족’ 정체성도 민족이라는 요소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유동적 표현으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생활인, 평화, 일본사회 공존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변형되고 있었다.

따라서 재일한인 2세로서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형성되고 변화된 두 사람의 민족정체성의 특징은 기존 연구에서 발견된 재일한인 2세의 잠재된 민족정체성 출현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조직과 개인, 재일한인 사회와의 활동을 통해 형성되어진 유동적 민족정체성을 차별적으로 부각할 수 있다. 재일한인 2세가 차별적인 일본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지는 부정적 정체성을 지닌 P와 S는 성장기의 주변환경과 조직참여 등을 통해 잠재되어 있던 민족적 정체성이 발현되었고 이를 자산으로 사회운동가로 본인의 삶을 개척한 사례이다.

이것은 재일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일본 사회에서 자신의 타자성을 대면하는 순간으로 2세 이후는 열등감 및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갈등의 시기를 겪고 나서 민족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생산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보인다고 분석한 논의들과 연결된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는 생애 시기에 따라 일본사회의 사회적 상황, 개인과 조직의 역량, 민족구성의 내용적 차이 등에 따라 민족정체성은 가변화되고 유동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재일한인 2세로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두 사람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들의 삶의 과정에서 발견되어지는 민족정체성의 특징과 변화를 고찰해 본 점이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것이다.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세대 간 집단연구를 통해 세대별 민족정체성의 특징과 변화를 보여준 기존 연구를 넘어 본 연구는 개인의 삶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지는 민족정체성이 각자의 사회적 위치성에서 주체로서 개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조직해 내는 행위성을 드러낼 수 있으며 움직임이라는 논리의 근거로 민족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의의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재일한인 2세로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한 본 사례는 일반적인 재일한인 2세의 민족정체성 특징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연구에 있어서 세대 간 정형화된 민족정체성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을 벗어나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민족정체성의 사례들을 발굴함으로써 향후 재일한

인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정립에 관한 방안을 다각화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경복(2009)「일본사회운동의 하나로서의 재일코리안 사회운동-시민운동과 국제연대를 통한 재검토」『일본공간』6, pp.162-192
- 김동엽(2019)「필리핀 한인재외동포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민족정체성」『동남아시아연구』29(4), p.181
- 김왕배(2003)「미주 한인 후예들의 민족주의-민족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현상과 인식』27(12), pp.55-75
- 김왕식(2005)「재일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 변화와 그 촉진 요인」『한국언어문화학』2(1), pp.33-47
- 김정구(2004)「재일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한국동북아논총』33, pp.265-279
- 데이비드 허타트(2011), 조만성 옮김『호비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서울: 도서출판 엘피, pp.1-340
- 박신규·이토히로코(2016)「오사카 사랑방을 통해 본 재일한인 1세의 삶과 고향의식」『비교일본학』36, pp.113-130
- 오노 치아키(2005)「재일한국인의 귀화에 관한 연구: 3세대를 중심으로」『성심사회학회』, pp.46-58
- 윤택림(1993)「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한국문화인류학』25, pp.273-294
- 이문철(2015)「민족정체성에 대한 학문적 인지와 타자의 시선」『한국학연구』38, pp.513-535
- 이승훈(2006)「일본에서 재일한국인으로 살아가가기: 한국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정체성」『현상과 인식』30, pp.77-101
- 이진원(2018)「전후 재일코리안 사회의 소수자 운동 발자취: 1945년부터 1965년까지」『일본학』46, pp.91-114
- 임영언(2016)「재일코리안 민족정체성의 민족에서 상징으로 이행 고찰」제33차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추계연합 학술대회, pp.414-419
- 임영언·허성태(2013)「재일코리안의 사회문화운동 전개과정고찰」『일본문화학보』58, pp.345-355
- 윤상철(2004)「재일한인의사회운동」『한국사회학회사회학대회 논문집』, pp.721-726
- 정병호(2003)「문화적 저항과 교육적 대안: 재일조선학교의 민족 정체성 재생산」『비교문화연구』9(2), pp.125-155
- 조현미(2014)『자갈투성이의 신작로: 재일한인 2세 배중도의 생애와 민족』책과 세계, pp.1-150
- 조현미·이현철(2013)「민족운동가 배중도의 내러티브를 통한 재일한인 1세대 디아스포라의 삶과 애환」『일본어문학』61, pp.607-634
- 정진성(1996)「일본의 외국인운동: 가와사카 지역 외국인 참정권 획득운동에서의 재일한국인과 행정의 만남」『사회과학연구』3, pp.265-281
- _____(2018)『재일동포』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p.1-322
- 정호영(2001)『민족정체성 형성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p.68
- 지충남(2018)「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로컬리티인문학』19, pp.7-38
- 하시모토 미유키(2017)「헤이트 스피치를 허락하지 않는 시민연대: 가와사키 사쿠라모토의 사회적 토양」『재외한인연구』43, pp.105-130
- 황혜경(2017)「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 변화고찰(2)」『일본문화연구』64, pp.333-353
- 李洪章(2009)「新しい在日朝鮮人運動」をめぐる対話形成の課題と可能性:「パラムの会」を事例として」『ソシオロジ』54(1), pp.1-177

稲津秀樹(2006)『在日韓国・朝鮮人運動のカルチュラル・ターン:生野民族文化祭におけ<民族>と<楽しさ>』
https://library.kwansei.ac.jp/profile/jc06_02.pdf, pp.1-9

川松あかり(2018)「語り部」生成の民俗誌にむけて:「語り部」の死と誕生、そして継承」『超域文化科学紀要(23)』, pp.5-25

佐藤一子(2014)「文化創造的営為としての昔話の口承活動: 遠野の語り部たちのライフストーリーの考察」『法政大学キャリアデザイン学部紀要』11, pp.245-277

竹中理香(2015)「戦後日本における外国人政策と在日コリアンの社会運動」『川崎医療福祉学会誌(24)』, pp.129-145

鄭榮鎮(2018)『在日朝鮮人アイデンティティの変容と揺らぎ: 「民族」の想像/創造』東京:法律文化社, pp.1-202

福岡安則・金明秀(1997)『在日韓国人青年の生活と意識』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33-36

日本法務省「在留外国人統計」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250012>

논문투고일 : 2020년 06월 20일
심사개시일 : 2020년 07월 15일
1차 수정일 : 2020년 08월 06일
2차 수정일 : 2020년 08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0년 08월 20일

 <要旨>

사회운동 참여를 통한 재일한인 2세의 민족정체성 변화 고찰

- 지역사회활동가 P와 S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박신규·이토 히로코

본 연구는 사회운동 참여를 통해 형성되고 변화된 재일한인 2세의 민족정체성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P와 S의 사례를 선택하였고 연구방법은 구술생애사 기법을 활용해 민족정체성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애 초기 이들은 민족차별과 조선인의 위치 자각을 통해 민족정체성의 맹아를 형성하였고 청년기에는 각자의 삶에서 민족정체성 강화와 부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운동의 참여 기제를 만들어 나갔다. 장년기에는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잠재적 민족정체성이 발현, 강화되었고 현재는 시민연대 및 카타리베 활동가로 참여하면서 이들의 민족정체성은 유동적 정체성의 성격을 지니면서 변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일한인 2세로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형성되고 변화된 두 사람의 민족정체성의 특징은 ‘민족 정체성이 민족이라는 요소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유동적 표현으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생활인, 평화, 일본사회 공존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변형되고 있었다

A Study on the Change of Ethnic Identity of Second-generation Korean Japanese through Participation in Social Movement

- Focus on examples of community activists P and S -

Park, Shin-Kyu·Ito, Hirok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thnic identity formed and changed through participation in social movements as a second generation Korean-Japanes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 Second-generation Korean-Japanese, P and S who had experience in social movement participation in Japan were selected. The oral life history research method was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 As a child, they became aware of their ethnic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the “Korean” position. This is the basis for national identity growth. In their adolescence, each person’s ethnic identity is negated and established, which makes a difference in future social movement participation. In their adult age, they act as national activists and community activists, interpreting and strengthening potential ethnic identity. In the last present period, it was transformed into a civil solidarity activist and a Kataribe activist, which can be expressed by the emergence of a fluid ethnic identity.

The content of their social movements, characterized by their period of life, has changed with the changes in Korean- Japanese society and Japanese internal society. Rather than emphasizing the elements of ethnicity, the ‘ethnicity’ identity was diversifying into moving people, peace, and coexistence with Japanese society through moving and moving expressions.